인턴쉽/실습 보고서

Internship Review

이름: 이*희	학번: 2018*****
호텔 명: Pacific Islands Club	
국가, 도시: 미국, 사이판	
근무 부서명: 프론트 데스크	
근무 기간: 9/19 ~ 12/16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가한 목적: 호텔 경영에 대해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을 통해 보다 폭 넓은 경험을 쌓기 위해 참가를 했다.	
인턴쉽을 제공한 호텔, 근무부서, 주요업무는?: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있는 호텔은 미국, 사이판에 위치한 Pacific Islands Club 이라는 리조트이며 일년 간 3 개월마다 부서를 옮기며 근무를 하고있으며 프런트데스크에서는 고객님들의 체크인과 체크아웃 또는 손님응대와 안내를 맡고있으며, 예약부서에서는 고객님들의 객실예약 컨펌과 수정, 식당예약 접수, 객실 요금이나 식음료 요금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다. 식음료 부서에서는 식당에 투입되어 홀 서빙, 캐셔, 에스코트등을 맡아 근무를 하고있다.	
인턴쉽 이외의 현지에서의 생활 (여행및 음식, ...)은? : 낯선 나라에 떨어져서 하는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근무에 대한 적응 뿐만 아니라 날씨,문화 그리고 음식에 대한 적응도 같이 해야 했기에 머리가 아파오기도 했다. 하지만 점차 적응이 되었을때 비로소 현지 생활을 즐길 수 있었고, 이렇게 느끼는데 걸린 시간또한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이후로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등을 찾아 나서기도 하며 이것저것 많이 도전할 수 있었다. 사이판의 더운 날씨의 경우도 완전히 적응하여 서핑이나 스포츠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각종 사이판 기념일에 진행하는 행사같은 문화활동도 기회가 된다면 참여를 하고 있을정도다.	
인턴쉽 경험을 통해 얻은것들은? 무엇보다 영어실력이 많이 느낀것을 온 몸으로 실감하고 있으며, 근무에 대한 자신감과 손님응대에 대한 노하우 생겼다. 이론만 배워서는 절대 얻은것들을 인턴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인턴쉽프로그램 참여를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조언: 처음에는 두렵거나 못할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전부 걱정에서 생겨나는 착각일 뿐인것 같다. 결국에는 적응이 될것이고, 그 시기만 지나간다면 많이 발전하고 성장해있는 자신을 발견 할 수 을 있을것이다. 두렵거나 걱정이 되도 일단 부딪히는것을 추천한다. 부딪히며 생긴 상처는 다시 아물면서 굳 굳은 살이 생겨 피부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더욱 단단해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것이다.	